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뀐 일상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다르게 보다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들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속히 그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의 두달간 가족들은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식재료 구입을 위해 10일에 한번 혹은 2주에 한번 마트에 가기도 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거의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답답한 일상이긴 해도 오히려 바깥 활동이 주는 불편함을 이룰테면 동양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가족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제한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기간에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꼭 이스라엘이라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모든 사역의 장이 축소되거나 혹은 막힌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찌보면 지금이 더 좋은 기회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기회인데 반해 상대방 쪽에서 다가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원치 않기에 가만히 앉아 기도할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생활도 사역도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속에서 나름의 방법들과 연결된 고리로 모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석하고 있는 유대인 교회도 한국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었던 기도의 자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은 쉽게 모이거나 만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만남의 장이 더욱 확대되고 또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이후 찾아올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가 큰 이슈라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부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 시기에 현지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요 또다른 방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한명령과 강제

공권력이 동원되어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리를 알리고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무질서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량 식재료 구입

마트에 들어가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 또 까다로워졌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하고 또 입구에서 줄을 서서 일일이 체온을 재고 또 사람들 간에 거리도 2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아의 치아 치료

코로나 19로 인해 치과병원이 모두 닫은 터라 급한 대로 제가 의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살롱!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평안하시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 평안을 묻고 또 잘 지내시느냐 여쭙는 것이 망설여지고 또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만나뵙지 못해도 다 듣지 못해도 충분히 예상되고 또 그려지는 상황이 있기에 저희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다소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매일 생각나는 사람들, 교회들 그리고 예상되는 그들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떠올리며 요즘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지나고 건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약 7개월간 비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단비는 하늘로부터 변함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두에게 힘든 시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격언 중에 “이또한 지나가리라 (גַּם זֶה יַעְבוֹ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어찌보면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한달이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5월 내내 여러분 각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 기도제목 」

1.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영적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 막혀있는 사역의 장이 다시 열리고 이 기간에 현지인(노인센터, 현지교회, 베두원 마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3.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진로에 대한 물음과 확답을 얻을 수 있도록
4. 단아의 이빨 치료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 다비드의 눈통증과 두통을 치료해 주시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은)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